

세계문화유산 '조선 왕릉'

World Heritage 'Chosun Royal Tomb'

이종호 / 정회원, 시원 건축사사무소
by Lee, Jong-ho, KIRA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6월 27일 스페인 세비아에서 열린 제33차 회의에서 '조선왕릉'을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올리도록 확정했다. 40기 왕릉 전체가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이에 앞서 실사단으로 방한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평가보고서에서 "조선왕릉은 유교와 풍수적 전통을 근간으로 한 독특한 건축과 조경 양식으로 세계유산적 가

치가 충분히 인정 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제례의식 등 무형의 유산을 통해 역사적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왕릉 전체가 통합적으로 보존관리 되고 있는 것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이와 함께 조선왕릉이 능침공간, 제향공간, 진입공간으로 나뉘고 공간마다 독특한 조성 방식을 갖추고 있다는 점, 도시화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데다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돼 완충지역에서 개발행위를 금지한다는 사실도 등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건원릉 제향 어가행렬



제향 장소로 입장하는 필자(공조판서역)

한국의 능은 규모는 작지만 짜임새가 있고 자연친화적이다. 특히 600여 년 동안 옛 모습대로 지켜지고 있는릉제향은 세계적으로 유일하다.

이로써 한국은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유적,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에 이어 아홉 번째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조선의 역사와 미의식, 철학, 생태관이 집약된 왕실의 생활공간인 창덕궁, 제례공간인 종묘에 이어 사후 세계를 나타내는 왕릉이 세계 문화유산이 된 것은 조선의 문화와 정신을 세계가 인정을 했다는 뜻이다.

다시 보는 조선왕릉, 그 찬란한 유산

조선왕릉은 조선왕조 519년(1392~1910년) 동안의 27대 왕과 왕비 및 사후 추존된 왕과 왕비의 무덤을 말하는 것으로, 총 42기 중 북한 개성에 있는 제릉(1대 태조의 원비 신의왕후의 능)과 후릉(2대 정

종과 정안왕후의 능)을 제외한 동구릉, 광릉, 태릉, 영릉 등 서울·경기와 강원 지역에 40기가 분포되어 있다. 한 왕조의 왕릉 전체가 이처럼 온전하게 보존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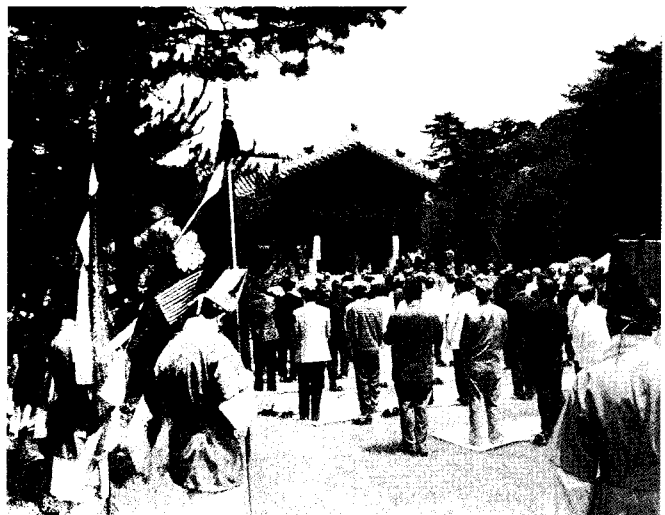
조선의 왕릉은 속세에서의 고단함을 잊고 편안히 쉬는 공간으로 꾸몄다. 언덕의 양지바른 곳에 적당한 크기의 석물과 회벽실을 만들어 잔디로 피복하여 아름다움을 더했다. 선왕의 혼백이 능력에 나와 노시기를 바라 혼유석(혼이 노니는 상석)을 능침 앞의 고석(북 모양의 돌) 위에 올려놓았다.

왕릉은 당대 최고 장인(匠人)들이 동원돼 만든 조선 건축·사상·미의식의 결정체였다. 왕릉이 보존된 데는 과학적 조성방법이 한몫했다. 조선 왕릉은 서울 삼성동의 선·정릉을 제외하곤 도굴된 적이 없다. 석회와 황토, 모래를 섞어 만든 특제 혼합물로 관(棺)과 석실 사이를 두텁게 채웠기 때문이다.

봉분 주변엔 떡갈나무를 심어 산불을 예방했고, 지대가 낮은 홍살문 주변엔 습지에 강한 오리나무를 심었다.



간원릉 제향을 봉행하는 정자간



국궁사배를 올리는 참빈객들



제향을 올리는 참빈객들



제향을 마치고 나세오른 쪽 세 번째가 필자

왕릉이 갖고 있는 홍살문, 정자각, 능침에 이르는 공간 구성과 문신석과 무신석, 석호와 석양의 조각들에는 조선시대 전체를 꿰뚫는 정신, 즉 자연에의 순응, 도덕적 가치로서 경(敬), 윤리로서 충(忠)과 효(孝), 그리고 미적 덕목으로서 검소 등이 들어 있다.

조선 왕릉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했기 때문에 조성 원칙은 일정하지 않다. 봉분 높이도 해발 27~260m로 다양하고 정자각과 봉분의 높이 차도 9~39m에 이른다.

홍살문에서 정자각에 이르는 길인 참도(參道)는 평평하기도 하고 경사지기도 한다. 하지만 조선 왕릉 어디서나 홍살문에서 정자각이 봉분을 가리는 양상은 같다.

홍살문에 선 참배자의 눈높이(150cm)에서 정자각 지붕을 향해 일직선을 그어 생기는 수직각 안에도, 홍살문 중앙에서 정자각의 양끝을 향해 그어 생기는 수평각 안에도 봉분은 어김없이 숨는다.

그럼으로써 경외감과 신비로움은 배가 된다.

15세기 새로운 이상 국가를 건설하려는 국초의 기상은 무엇보다

도 동구릉 안에 있는 태조의 건원릉(健元陵)에 잘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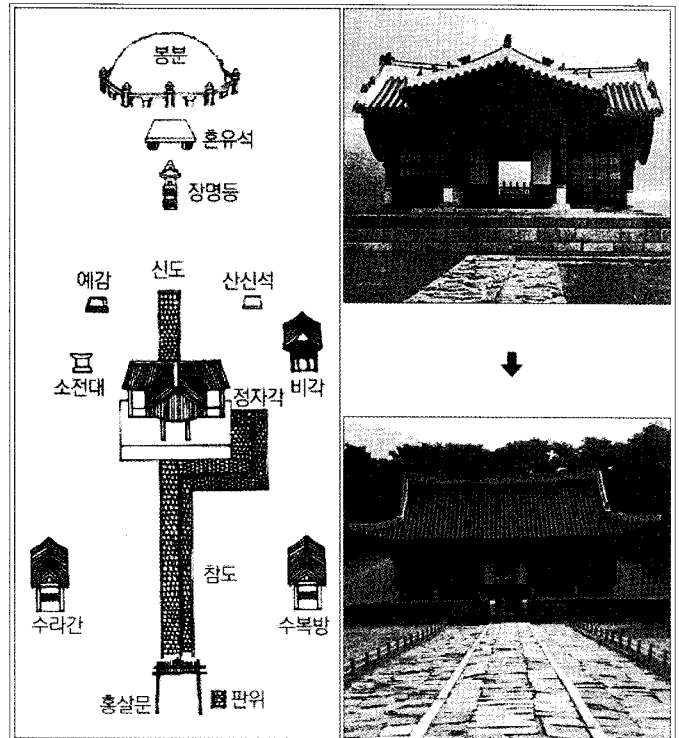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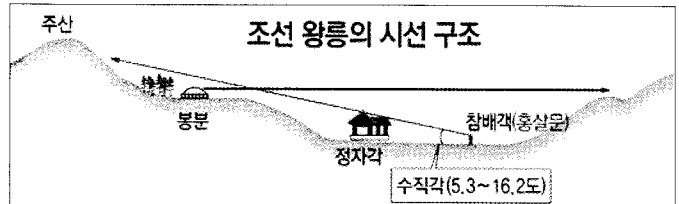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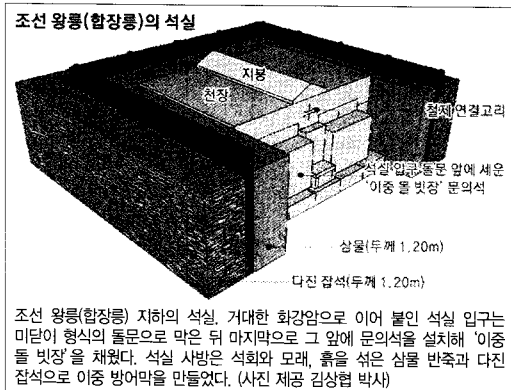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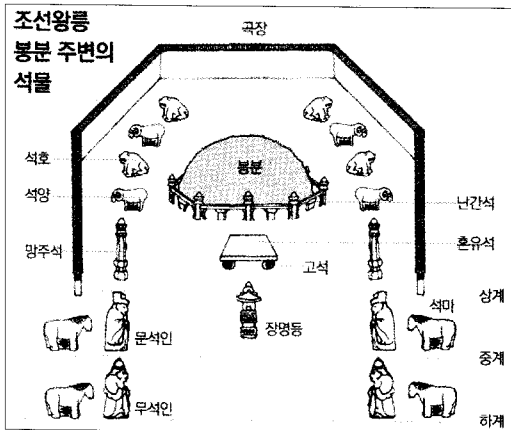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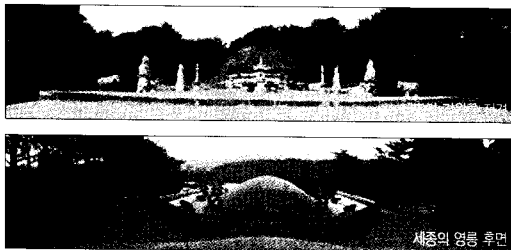
1408년에 조성된 건원릉은 박자청이 건설의 총책임을 맡았다.

박자청은 도성과, 궁궐, 종묘 그리고 왕릉을 조성한 당시 최고의 건설본부장이었다.

왕릉 조성은 산릉도감에서 시행했는데, 최고의 풍수가 건축가, 조각가를 동원해 온갖 정성을 기울여 만들었다고 한다.

조선 왕릉을 둘러본 유럽 건축, 조경가들은 '신의 정원'이라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베르사유 정원으로 대표되는 정형적이면서도 인위적인 프랑스식 정원,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꿈꾼 영국식 정원에 비하자면 자연과 사람의 인위적 손길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 조선 왕릉은 그들의 이상에 가까웠을 것이다.

또한 '자연합일'이라는 공통분모를 두고도 평지에 웅장한 규모와 높은 담장으로 위용을 과시한 중국에 비해 더 뚜렷한 자연친화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유네스코 실사단으로 참가했던 중국의 왕리준 단장(건축학 전공)도 중국 황릉을 연구한 사람인데, 중국의 큰 능과 비교하며 조선왕릉을 폄하하면 어쩌나 걱정했던 우리 측 걱정과는 달리 전문가의 식견으로 조선왕릉의 가치를 극찬했다는 후문이다.



조선 왕릉은 입구 홍살문을 지나 참도를 거쳐 제한 공간인 정자각으로 이어진다. 정자각 뒤는 오직 신만의 공간이다(그림). 문중 현릉(경기 구리시의 정자각과 참도(오른쪽 위 사진)). 정자각은 평면이 '丁'자 모양으로 독특하다. 대한제국 선포 이후 황제릉인 고종 홍릉(경기 남양주시)은 형식이 다르다(오른쪽 아래 사진). 정자각은 '一'자 모양의 침전으로 변했고 참도는 신도 좌우에 2개의 어도가 있는 형태다. (사진 제공 국립문화재연구소)


철저한 보존·관리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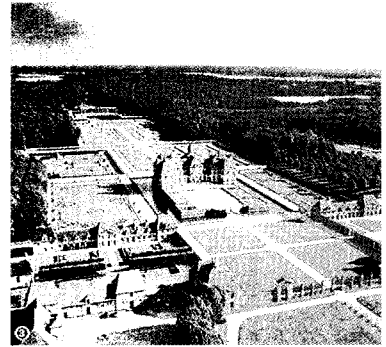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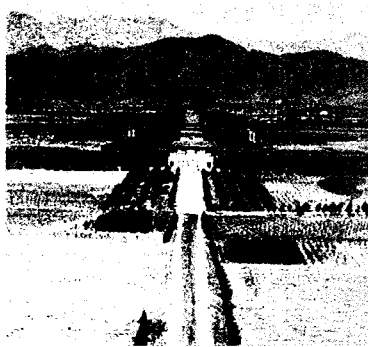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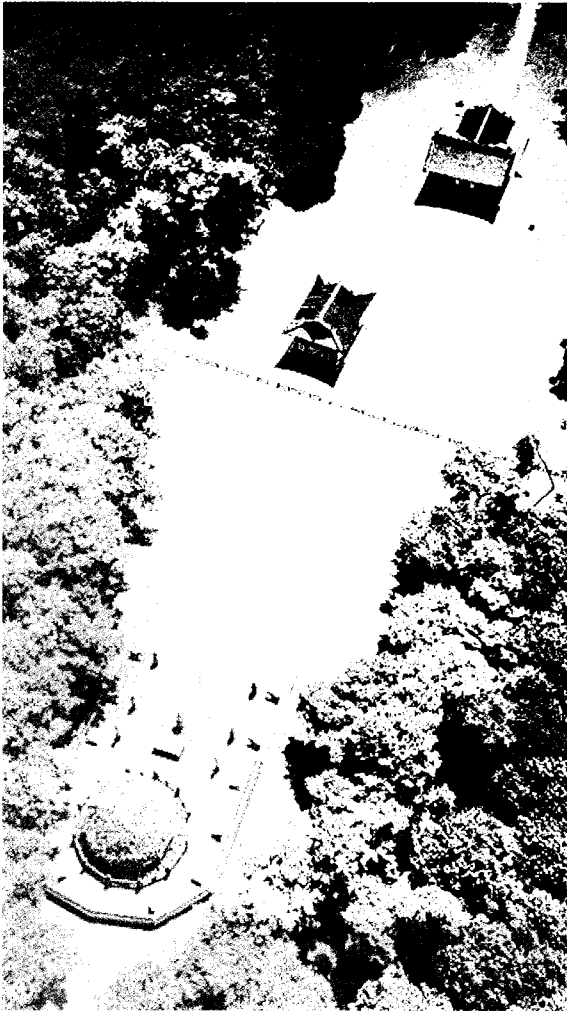
태종이 도성 10리 밖으로부터 100리 이내에 왕릉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이후 신성불가침의 성역처럼 울창한 숲이 들어서 사실상 그린벨트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일제치하와 6.25동란을 겪으면서 적지 않게 훼손되었고, 상당수 왕릉의 주변이 도시화와 인구 증가, 주거지역 확장으로 완충공간이 축소되거나 훼손됐다.

태릉에 사격장이나 국가대표 선수촌이 들어서고 선릉의 경우 홍살문과 인접해 도로가 지나갈 정도로 능역이 줄어든 것, 현릉 앞에 늘어

선 화훼단지, 정릉 앞에 아파트가 들어선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유네스코도 이런 점을 감안해 조선왕릉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면서 일부 훼손된 능역을 원형 보존할 것과 개발압력이 커지는 것에 대비해 완충구역의 적절한 보존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유네스코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왕릉 주변에 고층건물이 들어서거나 경관을 해치는 각종 시설물이 난립하는 것은 철저히 막는 것이 우리 후손들의 몫이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 살아 숨쉬는 유일한 세계 문화유산 조선왕릉을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태조의 능인 건원릉(경기 구리시1)과 중국 청나라 태조의 능인 동릉2, 프랑스 17세기 대표적 정원인 보르보공트3, 건원릉이 자연 지형을 최대한 이용한 반면 동릉과 보르보공트는 인공적인 느낌이 강하다. 유럽의 정원건축가들은 자연과 인공이 조화된 조선 왕릉에 '신(神)의 정원'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홍살문에서 바라다 본 건원릉 전경